



10/8	10/9	10/10	10/11	10/12	10/13	10/14
마 17-19	마 20-22	마 23-24	마 25-26	마 27-28	막 1-3	막 4-5

## "모든 문화를 넘는 진리"

스스로 의롭다 생각한 젊은 부자는 아마도 자신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의만 온전히 의지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마 19:16~30).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면 누구도 설 수 없으니까요 (시 130:3).

마나갈라시(Managalasi) 종족의 추장도 자기 마을에서 일하고 있던 성경번역 선교사에게 비슷한 도전을 받기까지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적이 없고, 화를 내지도 않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전 선한 사람입니다."

모였던 사람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였고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도 버리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지인으로서 번역사역을 했던 포키(Poki)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이후로 사람들이 모두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다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 짐(Jim)도 침묵했지만, 순간적으로 기도한 후에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복을 비시나요?" 추장도 이미 번역된 십계명 중 첫 계명을 잘 알기에, 마침내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잠깐 동안 토론이 있던 후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신약성경 봉헌식을 할 때 또 다른 추장 마리자가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짐과 저(Jaki)를 돌아다 보며, "당신들이 오기 전에는 귀신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에 정말 심하게 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식구들이 죽어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오래 동안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왜 더 일찍 사람들을 보내 말해 주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서 지금 그들은 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번역 점검 사역을 했던 출룰루(Chululu)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두 분이 가르쳐준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 우리 민족 대부분이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시면 친구들에게 그분들의 기도와 헌금이 절대로 허비되지 않았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당신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교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Jaki Parlier, *Poking Holes in the Darkness*, p. 96, pp. 180-181에서 인용)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문화에 맞게 번역될 수 있고, 그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팔리어 부부와 그들과 동역한 교회들처럼, 기도와 재정과 삶을 드려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동일한 역사가 오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선행과 고행이나 수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전가되는 의를 선물로 받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이 이뤄지게 해주세요.

##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Oct 8	Oct 9	Oct 10	Oct 11	Oct 12	Oct 13	Oct 14
Mat 17-19	Mat 20-22	Mat 23-24	Mat 25-26	Mat 27-28	Mar 1-3	Mar 4-5



### "The Transcendent Truth"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Jesus challenged the self-righteous young man, who thought by doing good things he was blessed, to wholly trust in God and His righteousness (Matthew 19:16-30). No one could stand if God kept a record of sins (Psalms 130:3).

A chief was in the same position before he was challenged by a Bible translator who worked in his village.

I'm not a bad man. I've never stolen anything from another person's garden; I don't get angry; I have only one wife; I'm not bad, I'm a good person."

The group at the meeting agreed as he was a good leader and husband. He had been loyal to his wife even she was barren. Poki, a national translator who tried to teach that all men are under a curse since Adam and Eve had sinned, remained silent.

Jim, Wycliffe Bible translator working in Managalasi people, was in silence, too but he prayed momentarily and asked the chief. "who do you pray to?" As the chief knew the first of the Ten Com-

mandment already, he admitted that he was a sinner and after a few moments of discussion all people agreed.

Later, when they dedicated the New Testament, another chief Marija stood and made a speech.

"Before you came," he said, swinging his eyes to Jim and me (Jaki), "we prayed to the spirits. We were always afraid. And when our people died, we cried because we would never see them again. But now, because of Jesus, we don't have to be sad when our relatives die. We will see them again."

He had incredible authority in his gaze, and an uneasy feeling shot through me. I drew in a deep breath and waited.

"The villagers in America knew about Jesus for many, many gardens," the chief pointed out. "Why didn't they send someone to tell us long ago? Why didn't your grandfathers come and tell our grandfathers? And your fathers come to tell our fathers? No one came to tell them, and now they all live in the fire."

Chululu, a translation checker, also took his turn and said,

"But the things you taught us have come good, and most of us are born again. And we're going to teach our children the new road, and our children will teach their children. We will all live in God's village together some day.

"When you go back to America, tell your friends that the money and their prayers have not been wasted. Tell your churches how thankful we are to them for sending you to give us God's Word. Tell them how it changed our lives and that we are now God's people."

(quotations from, p. 96, pp. 180-181, *Poking Holes in the Darkness*, by Jaki Parlier)

God's truth can be translated into all cultures and will transform them. Just as with the Parlier couple and the churches that worked alongside them, the same work is being accomplished today through God's people who dedicated themselves through prayer, finances, and their very lives!



**Week 40 Prayer:** Lord, may the gospel be proclaimed to all nations in their own languages, so that they may receive as a gift the righteousness imputed to them through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alone – not through good works, asceticism, or training – and may the kingdom of heaven be established among them as they live as God's children and people.